

내년 지방의회 여성진출 확대 묘안 짜내기

94.
7.14

김미경 기자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높이기 위한 각종 묘안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이사장 김정숙)는 12일 '아·태지역의 여성과 정치' 국제학술세미나를 열어 우리나라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확대 방안을 모색했으며, 지난 7일에 '20% 지방의회 여성 참여 후원회'가 발족하는 등 여성계의 발빠른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아·태지역의 여성과 정치' 세미나에서 '한국의 여성정치 발전 전략-정치개혁법과 95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백영옥 박사(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는 "정치개혁법안이 통과된 뒤 처음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자금력이 부족한 여성들의 정치권 진입의 적기"라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진출방안을 제시했다.

백 박사는 여성계와 정당쪽에 △여성후보발굴 추대위원회를 구성할 것 △지방자치는 생활정치로 지역에서 봉사해온 여성들에게 적절한 활동이라는 사실을 홍보할 것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은 높지만 투표율이 낮은 20대와 고학력층의 투표율 제고방안을

후보지원 모금운동·남성후원회 조직도



지난 12일 열린 '아·태지역의 여성과 정치'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카렌 파젯 교수, 대만 여수련 의원, 일본 모리 야마 마유미 의원(왼쪽부터).

모색할 것 △여성후보 후원회를 광범위하게 조직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각 정당은 △당직이나 후보공천 때 쿼터제를 도입하고 △여성후보 선거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마련하며 △여성후보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같은 선거구에서 여성후보가 난립하지 않도록 조정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카렌 파젯 교수(정치학)

가 소개한 미국내 여성정치인 지원기금인 '에밀리의 목록'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볼 만한 흥미로운 여성정치활동 지원방법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86년 미국 자선사업가 엘런 말콤이 시작한 이 방법은 여성유권자들이 2백달러를 내고 2명의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말콤 자신이 출마 예정자들을 인터뷰해 '유권자들이 인정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승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추천 후보

자를 결정하고 현금자들에게 후보자들의 경력을 소개하는 소식지를 보내 결정된 후보자에게 기금을 몰아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파젯 교수는 "그동안 이 기금으로 지원한 후보자들은 99% 당선됐다"며 한국에서도 활용해볼 만한 지원방법이라고 권했다.

한편, 지난 7일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성의 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강문규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강원용 한국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김찬국 상지대 총장,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 등 30여명이 주축이 돼 결성된 '20% 지방의회 여성참여 후원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장)는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한국여성의 의회진출률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 아래 활발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후원회는 각계 지도층 인사 1천명을 후원회원으로 참여하게 하고, 후원회원 중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를 지지하는 '5백인 남성모임'도 조직하며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5천원 후원회원' 모집활동을 벌이는 등 지방의회 여성인식 0.9%라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벗어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